

지역감정 소재로 한 이색장편소설 영·호남 남녀의 만남과 사랑 그려

— 「경상도남편과 전라도아내」 쓴 최승환씨

이 책 그 사람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전에서 그 악패가 위험수위에까지 육박했던 지역감정문제를 소재로

다룬 이색적인 소설이 나와 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운동삼’과 ‘김대순’. 두 주인공의 이름이 어느 정치인들의 이름과 흡사한 이 소설은 순박한 경상도청년과 전라도처녀의 만남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줄거리로 되어 있다.

「경상도남편과 전라도아내」(서연)라는 제목의 이 책을 두고 하필이면 남편이 경상도냐는 질문에, 「전라도남편과 경상도아내」를 후편으로 준비중이라며 웃는 최승환씨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작가다.

지난 73년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한 그는 85년에 발표한 「5학년 3반 청개구리들」로 많은 어린이 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와 동화에서 체득한 함축성있게 정제된 문장과 재미를 우선하는 작법은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경상도남편과 전라도아내」로 텔레비전 방영제의를 받았다고 전하는 그는 인기작가이기 이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그런 그가 글쓰는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이는 것은 기도. 통일의 염원을 주제로 하루도 걸리지 않는 기도시간중에 “지역감정해소의 절박함을 깨달아 구상하게 되었다”고 이번 작품의 집필동기를 밝히는 최승환씨는 “편협한 근시안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배달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전주에서의 군대생활이 남다른 애정으로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모질고 힘든 군대생활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한다. 사실 사투리 구사가 어려워 작업이 중단될 때마다 부대근처 동네아주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주던 팔죽의 감칠맛을 떠올렸다고.

그의 이런 별난 애정은, 자녀들이 소설속의 주인공과 같은 결혼을 원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해 축복하겠다”는 그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게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앞세워 지역감정을 부채질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시도해야죠.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보면 지역감정은 한낱 정치싸움판에 서있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의 호들갑에 의해 부추겨진 지역감정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고래싸움에 말려든 새우처럼 민초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얘기.

이러바 지역감정이 정치적·역사적 물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긴 피해였다면, 이제는 민족적 이성을 되찾아 재건과 복구의 삶을 들 시간이라고 역설하는 그는 지역감정해소의 선결문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허상을 향한 메아리’라고, 잘라말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지역감정에 쪼든 국민들에게 청량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동화를 쓰는 작업에 몰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 최태원 기자



구직 여성에 실속있는 취업정보서 교육기관·자격증 여부 등 집중소개

— 「여성부업 여성취업」 펴낸 정명인씨

이 책 그 사람

“미혼여성은 물론 아이들을 키워놓고 난 다음의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일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만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뜩이나 여성에게 불리한 취업환경에서, 정보마저 어두워 중도에서 하차하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종들을 골라 세밀하게 소개하려 했습니다.”

여성 대상의 실속있는 취업정보 모음인 「여성부업 여성취업」(심지)을 펴낸 정명인(31·프리랜서) 씨는 지난 8월 책출간 이후 하루 20~30통씩 쏟아지는 문의전화에 깜짝 놀라하는 표정이다.

“전화하는 분은 이밖에 다른 유망직종은 없느냐, 왜 지방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느냐 등인데, 이는 남녀간 취업기회 불평등의 한 반증임과 동시에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론처럼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지나 관련잡지 등에서 주로 다뤄왔던 취업이나 재테크 등에 관한 정보들이 보다 내용에 전문성·구체성을 가하면서 단행본으로 속속 출간되고 있는 최근의 출판동향과 궤를 같이한 이 책은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시켰다는 것 외에도, 학력제한없이 일정기술을 습득하면 취업가능한 ‘기능직’에 초점을 맞춰 기획한 점이 신선함을 준다.

예를들어 여성유망직종이라 하며 고학력

전문직으로만 치중,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하던 것과는 달리 만화영화애니메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레크레이션지도사, 간병인, 가정관리인, 광고도장사 등의 직종선정이 그것이다.

모두 49개의 직종에 대상도 활동적인 여성에 맞는 것, 치밀한 성격을 요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따로 기능을 익히지 않더라도 주부라는 직업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등 개성과 나이에 따라 직종을 세분해 놓은 점이 특색. 특히 자격증 취득방법, 교육기간 및 보수, 전망 등에 관한 정보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관심있는 이들에 요긴한 정보가 되게 했다.

지방 구직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말에는 지방의 취업교육센터를 보충하기 위해 열흘간 부산 광주 등지를 취재하고 왔다는 그는, 오는 10월 중순께 틀린 전화번호, 빠진 직종 등을 보완, 개정증보판을 낼 계획이라고 말한다.

정씨가 취업정보에 관심을 갖고 이같은 책을 기획하게 된 데는 개인이 겪었던 졸업후 3년여간의 대책없던 실업의 체험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람이 자꾸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없고, 대학까지 졸업한 딸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냈으니 오죽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사고를 갖게 됐어요. 이제 여성들도 무조건 ‘줍다’ ‘없다’ ‘이건 안된다’는 식의 편견을 벗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혜옥 기자



책읽기로 극복하는 자살에의 충동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들 엮어내

—「자살, 어느 쓸쓸한…」 펴낸 권태현씨

이 책 그 사람

나이를 먹고 조금씩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살은 고단하고 쓸쓸한 삶의 어두운 유희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결행하거나 막연히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인간의 행동선택의 자유로 합리화된다.

최근 「자살,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책나무)을 출간한 권태현씨(32)는 그동안 일종의 통과례로 여겨져 왔던 자살에의 충동이 심각한 '실제상황'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당장 일간지 사회면을 유심히 펼쳐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지 실감할 겁니다. 요즘은 죽음이 하도 낮익은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점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인들의 무관심한 시선도 시선이려니와, 바로 그들 자신속에 잠복해있는 자살의 내적 원인이다. 그에 따르면, 가난이나 실업 등의 외부적 환경은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다 삶에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살에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그때의 심리상태 등 그 내면구조를 여러 각도로 드러내줌으로써 자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을 시시콜콜하게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역이용한 셈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는 20대 초반에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전과자'이다. 물론 미수로 끝났지만 그때부터 그는 자살에 관한 책을 다치는대로 읽으면서 '자가치유'에 나섰던 것. 까뮈·니체·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를 비롯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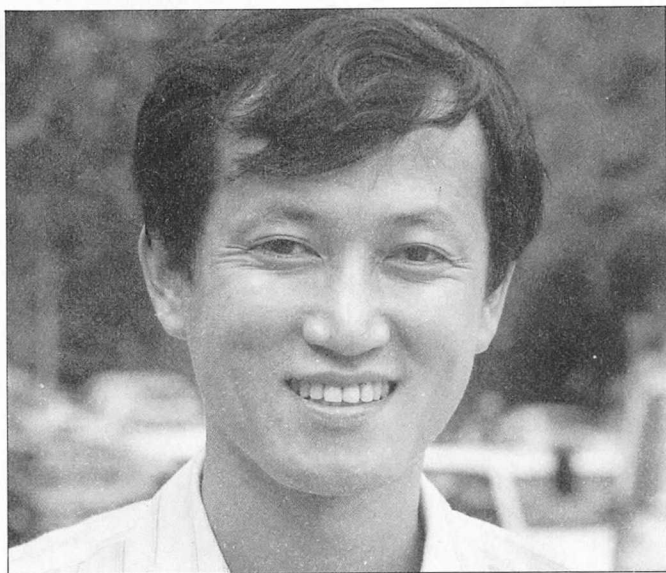
생텍쥐페리·토스토예프스키·보들레르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들은 물론 칼 A. 메닝거 등 정신분석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수록된 많은 글들은 모두 당시 그의 절실했던 독서체험의 결과물이다.

이번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러한 책읽기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자살을 기도했던 무렵보다 더 어려운 기간이 자주 찾아왔지만 더 이상 자살을 꿈꾸지 않”는 시인이 되었고, 오랜 잡지사 기자생활을 거쳐 이젠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 작업을 요구하는 동인지(「國詩」)를 주도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시의 대중화를 꾀하는 「시나무」 편집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글빛에 쫓기며 정신없이 생활하면서도 자살에 대한 관심은 늘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에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책읽기를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과연 얼마만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엮어내기까지의 그의 역정이 독자들에게는 책의 내용을 뛰어넘는 '절실함'으로 다가올 듯하다.

— 정소연 기자



인텔리어성의 '神病' 다룬 사이코드라마 정신과 의사가 벌이는 한판의 내림굿

—「프쉬케, 그대의 거울」 펴낸 김정일씨

이 책 그 사람

유희, 꿈꿀 수 없도록 자신의 삶을 죄어오는 갖은 형태로부터 탈출하여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고픈.

단순화시켜보면 정신병의 발병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민속학을 전공한 한 인텔리 여성의 정신병을 소재로 한 사이코드라마 「프쉬케, 그대의 거울」(한국가이던스)을 펴낸 김정일씨(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32세)는 정신병을 '에덴동산의 무화과' 이래로 지속되어온 인간이 지닌 원형적인 유희의 형태인 '신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그에 따른 형벌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정신병이란 인간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의해 의식이 해리되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그가 무의식의 세계를 곧장 신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아프로디테와 미모를 닮았던 프쉬케가 신이 제시한 금기를 깨고 남편인 에로스의 얼굴을 훔쳐본 형벌로 모진 고행을 겪는다는 그리스신화를 재능과 미모, 탁월한 조건을 갖춘 주인공 효정의 정신병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티브로 원용한 것이나, 효정의 치료를 위해 내림굿을 시도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도 정신병을 신의 의지를 거부하고 그에 도전한 오만한 인간에 내리는 '신병'으로 본 상징적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루에 그가 돌보아야 하는 환자는 줄잡아 120여명. 거의 약물치료 등 물리적인 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의료현실 속에서 내림굿은 그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드는 것이다.

“정신병의 완전한 치유란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물치료로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요. 때문에 최근에 초과학적인 예술행위-연극, 음악 등을 통한 정신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림굿은 접신을 통한 신병의 치유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굿의 과정 자체가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정신과 전문의 경력 3년, 작품 속의 의사처럼 환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지닌 그에게는 넘겨다보고 싶은 유희의 세계는 없는 것일까?

“문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사정때문에 의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정신과를 택했지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문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맥이 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문학이 그에게 있어 유희의 세계였다면 세련의 희곡과 그동안 짬짬이 의학잡지를 통해 발표해왔던 에세이를 한데 모아 펴낸 「프쉬케……」의 출간으로 그는 어쩌면 그 세계에 대한 과감한 도전의 첫발을 내딛은 것인지도 모른다. 파편화된 타인의 自我를 수습해주기 위해 타인의 무의식세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일이 그에게 있어 형벌이 아니라면, 지난 6월 신들린 듯한 윤석화씨의 열연과 함께 화제를 모으며 무대에 올러진 「프쉬케……」의 공연은 그에게 문학과 접신을 가능케 한 일종의 내림굿이었던지도 모른다.

— 박남정 기자